

부처님 광명은 삼천계로, 감로의 법은 오대주로

강사 : 심정 스님(국제불광회 총화총회 회장)
 주최 : 조계종 중앙신도회, 서울불광산사,
 국제불광회, 서울협회
 일시 : 2008년 6월 24일 11시
 장소 : 서울 불광산사 대법당

'부처님의 광명은 삼천대천세계로, 법의 감로수는 오대주로' (佛光普照三千界, 法水常流五大洲)

인간불교(人間佛敎) 이념을 전하고자 국제 포교에 앞장서온 심정(국제불광회 총화총회 회장) 스님이 한국을 방문했다. 평소 무료봉사와 의료활동으로 나눔에 앞장선 '반갑다연우야'를 비롯해 많은 불자들이 함께했다. 조계종 중앙신도회장(김의정)은 축사에서 "불광산사 방장인 성운 대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자 앞장선 기록한 뜻과 수행을 존경한다. 중화민국이 유래 없는 발전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설법을 통해, 한국의 불자들 또한 부처님 정법대로 정진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 법문으로 우리 모두가 깨달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발원한다. 더불어 성운 스님의 뜻을 이은 흥법(弘法) 정신이 세상 곳곳으로 전해지기를 발원한다"고 말했다.

심정 스님은 1944년 대만에서 출생, 68년 출가해 임제종(臨濟宗) 49대 제자로 다음 해에 구족계(具足戒)를 수지하였다. 현재 법랍 40세로 동방불교강원 교수·불광산 중무위원회 서기·말레이시아 용화사(龍華寺) 주지·미국 서래사(西來寺) 주지·타이베이 보문사(普門寺) 주지·북해불학원 원장·불광산 중무위원회 총장·불광산사 주지·불광산 도감원 원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 수십 년간 성운 대사에서 깊은 인연을 맺어온 한국불교와의 관계를 저 또한 이어가고자 합니다. 불광산사가 한국의 통도사와 자매결연을 맺은지 30년이 흘렀습니다. 통도사 월하 스님을 비롯해 현재의 주지(정우스님에 이르기 까지 많은 교류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성운 대사께서는 1991년 국제불광회를 설립하고 재가 불자들이 불법을 널리 전하도록 격려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석존이 계시실 때는 삼보(三寶)가 전법의 기준이 되었습니다만 대승불교의 삼보는 재가불자를 포함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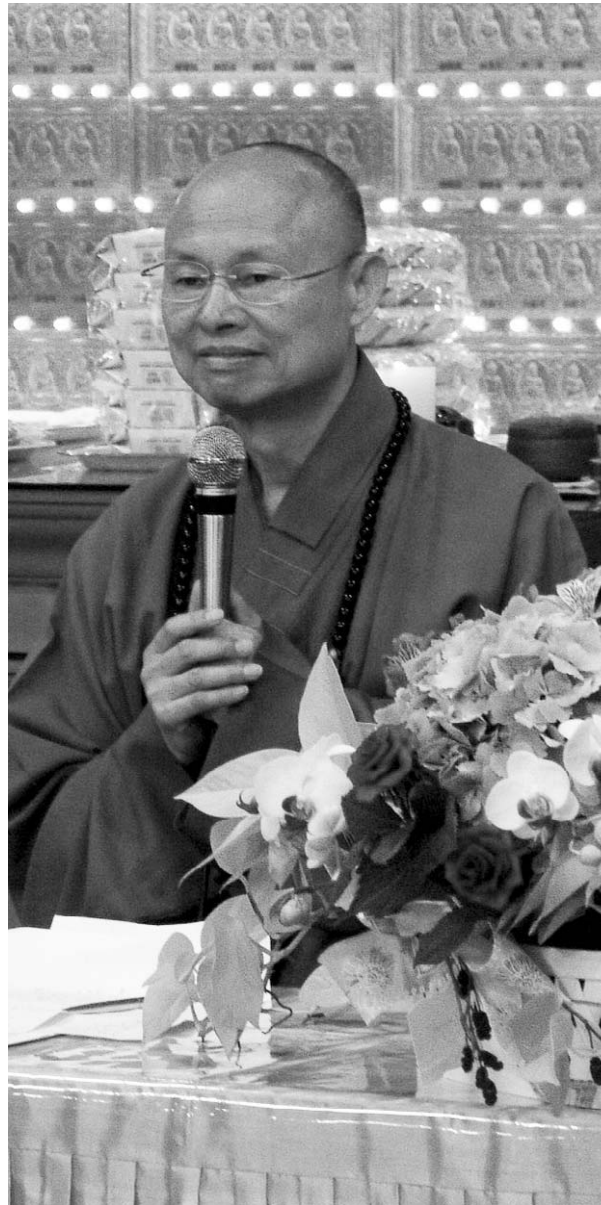
저는 '불교란 생명의 철학'이라고 자주 말합니다. 출가자들의 공적인 목적은 생사를 해탈하는데 있습니다만 재가자들은 부기뿐만 아니라 더 좋은 미래를 위한다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어떻게 해서 과거에서 지금 생까지 왔고 어떻게 다음 생으로 이어갈 것인가는 출가자와 재가자 모두의 공통된 화두일 것입니다.

불법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출가자 뿐만 아니라 재가자 또한 가능한 수행입니다. 재가자는 결혼을 하고 가정생활을 하면서 더 많은 고통과 즐거움을 누립니다. 불법이라는 기초에 의거해 생활하면서 얻은 체험을 결합하여 불법을 설행합니다. 이로써 재가불자의 경험담은 출가자들 보다 더 많은 법문을 가능하게 합니다.

저는 신도분의 자녀를 위해 결혼식에서 증명을 합니다. 참고로 불교 결혼식은 반드시 사찰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호텔에서도 가능합니다. 식장에 불단을 만들어 법당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결혼식에서 주례자로서 신랑 신부에게 어떻게 살아가면서 사랑 하라고 덕담을 합니다. 한편 결혼식의 많은 친인척들을 포함한 하객을 대표해 중화민국 국민당 주석이 축사를 했습니다. "심정 스님의 주례사는 전부 이론인 뿐이다. 저는 두 분께 저의 실제 경험을 말씀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재가불자가 본인의 실제 경험과 불교의 가르침을 접목하여 말하는 것은 매우 적절하다고 봅니다.

석가모니부처께서 열반하시고 5-600년이 지난 후에도 대승불교 흥기가 왔습니다. 경전의 서언이 불법승을 위주로 대미구와 대아라한을 열거하던 방식에서 재가불자를 대상으로 변화합니다. 특히 <유마힐소설경>을 보면 출가자 보다 뛰어난 재가불자와 만날 수 있습니다. 유마힐 거사는 몸이 상당히 안 좋아서 많은 출가자들의 병문안을 받습니다. 거사는 출가 스님들께 불법에 관한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대답을 하지 못하고 그 이후 출가자들은 유마힐 거사와의 만남을 꺼렸습니다. <유마힐소설경>은 머무는 곳이 어디건 불법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줍니다. 유마힐 거사는 신통력이 뛰어났습니다. 유마힐 거사가 묵은 곳은 협소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람이 들어와 편안히 머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말의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마음이 넓으면 사람의 많고 적음을 떠나 넉넉히 받아들일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1장의 공간'이란 좋은 사람과 안 좋은 사람 모두를 받아들일 수 있는 포용의 공간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입니다. 절의 주지 스님으로서 좋은 신도를 받아야 좋겠지만 나쁜 짓을 일삼는 신도 또한 받아 줄 수 있어야합니다. '1장의 공간'은 방장(方丈)스님의 어원이 되었습니다.

지혜로운 여성을 이야기하는 <승만경>을 소개합니다. 승만 부인이 보살계를 받을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부터 성불할 때 까지 절대 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선배와 어른스님께 자만심을 갖지 않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화를 내지 않겠습니다. 외모가 잘나



우울할 땐 '비우기' 설법 선정 뒤는 기초운동 개념

거나 못나가거나 재산의 유무에 대해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겠습니다. 어려운 사람이 와서 도움을 구하면 저의 능력이 다하도록 돕겠습니다. 사찰을 경영하는데 있어 생기는 수익은 모두 중생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중생을 위해 여섯 바라밀과 사십법을 행하겠습니다. 삼보를 호지하는 것을 잊지 않고 지혜로써 정법이 계속 이어지도록 정진하겠습니다."

승만 부인은 매우 젊었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재가 불자

들의 불교 지식이 많다 하더라도 지혜롭고 원력이 수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운 대사께서는 불법의 지식이란 재가불자들도 충분히 지니도록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의 조계종 중앙신도회는 재가불자로 이뤄진 단체인데 이런 재가불자 단체야말로 전법의 요람입니다.

불법을 배울 때 더 좋은 미래와 내세를 위한 마음으로 불교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생에는 가족이 더욱 화목하게 해달라고, 다음 생에는 더 많은 권력을 얻게 해달라고 하는 바람으로 말입니다. 보시란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생에 뿌려진 씨앗은 내생의 열매가 됩니다.

고통스러워 하는 것을 차마 보지 못한다면 보살도를 닦아 모든 중생이 이고득락(離苦得樂)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야(공성)의 지혜를 닦아야 합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서 사회 환경이 어지럽고 재난이 많이 일어나고 스트레스가 가속화 될 때야말로 참선 수행은 탁월한 정진의 원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일반인들이 괴롭고 우울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해결로 '비우기(비우기)' 방법을 설행합니다.

아시아 어느 지역에서 원숭이를 잡는 방법을 들려드리지요. 야자수 열매에 주먹이 들어갈 만한 구멍을 뚫어 놓는 것입니다. 그 안에 먹을 것을 넣어두고 잠시 자리를 피하면 곧 원숭이가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야자수로 옵니다. 야자 구멍 안에 손을 집어넣고는 손을 빼려 하지 만 손이 빠지지 않습니다. 나중에 사냥꾼이 와서 잡아갈 때 까지도 원숭이는 허둥거리기만 할 뿐 먹이를 뽐 손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인간도 이와 같습니다. 손안에 쥐어진 부와 권력을 내려놓으려 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한 마디 말에도 노심초사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즐거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선정을 두는데 있어서 기초운동의 개념입니다. 즐겨워지기 위한 방법은 간단합니다. 첫 번째는 양 입 끝을 위로 올립니다. 둘째는 눈을 하회탈처럼 합니다. 세 번째는 주의력을 코끝에 두고 들숨과 날숨의 호흡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양 입가를 위로 올릴 경우엔 혀가 입 밖으로 나오기 어렵고 번뇌와 망상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의력을 코끝에 집중하면 숨의 깊이가 더욱 깊어집니다. 화를 내려고 할 적에 숨이 가빠진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주의력을 코끝에 집중하면 화를 낼 수 없습니다. 이런 수행을 꾸준히 해 보십시오. 즐거움 마음이 유지될 것입니다. 즐겨워지는 방법을 항상 유념해서 항상 미소를 잃지 않도록 해 보십시오.

저는 참선을 할 때 윗니와 아랫니를 살짝 맞고 이를 다물라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머리에 힘을 빼고 목에 힘을 빼고 어깨 힘을 빼고 경추의 힘을 빼고요. 윗니와 아랫니를 가볍게 다물면 자연스럽게 미소 짓는 얼굴이 됩니다. 그리고 들숨과 날숨에 주의를 기울이다 보면 자연스럽게 다른 데 신경을 안 쓰고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제가 추천하는 즐겨워지는 방법은 속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아침저녁으로 반복해서 연습을 한다면 우리 안의 번뇌와 잡념은 청소 한 듯 깨끗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매일 생활을 하면서 보고 듣고 접촉하면서 내 마음에 맞고 맞지 않음을 분별합니다. 그러한 번뇌가 은행에 저축을 하듯이 쌓이게 되면 쉽게 꺼내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즐겨워지는 방법을 따라 해보십시오. 번뇌와 망상은 자연스럽게 순화될 것입니다. 여러분께 부처님의 기피와 더불어 건강과 행복을 발원합니다.

가연숙 기자 onmlower@buddhapia.com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딱기 좋은 상태로 배송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031-797-1357
 Fax 031-881-1350 긴급전화 : 011-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조명숙)

입종안내 대한선불 조계종

총무원장 **영곡 효주**
 총회 의장 **법달 원정**
 교육원장 **효타 원공**
 사정원장 **무착 효산**
 호법국장 **무타 대한**

각 지역구 중무원장 입종을 환영합니다

대한선불 조계종은 선을 생활화하는 중단으로서 불기 2552년 5월 17일 창종 하였습니다. 대승적 불교를 지향하며 이 땅에 불교도 건설을 함께하실 스님들을 기다립니다.

■ 교육원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사동 324-4번지 효타암
 전화 051)524-9406 / 010-7121-9406

■ 총무원
 경주시 내남면 망성리 753-1번지 무진암
 전화 054)744-0181 / 010-3178-1223

21세기 불자 자가(自家) 기도법

해조(解祖) 범산(梵山)스님이 쓰신 불자 한 사람이 꼭 한 권씩 수지 독송해야 할 "21C 불자 자가 기도법"이 드디어 불자들에게 선을 보입니다.

이책은 한글만 아는 사람이면 자기 집에서 혼자 충분히 기도할 수 있도록 저술하였으므로 불자들에게는 필수적인 경서입니다.

해조(解祖) 범산(梵山)스님
 1949년 전남 순천출생
 佛山 佛藏 스님을 은사로 득도 수계
 법무부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 역
 대한불교 원효종 경남총무원장, 중앙총회의원 역
 한해동불교대학 대학원교수
 한양공공대학교 객원교수
 한어래임 주지

[논의]
 인도불교의 철학적 고찰
 원시불교의 선정사상에 대한 연구
 Buddhism과 인도철학과 제학파의 비교 연구
 공사상에 대한 일 고찰
 독서문화의 정착 방안에 관한 고찰 등

[저서]
 그 속에 길이 있었다 · 웃으며 가는 저승길
 공저 국역상행요법집 · 외 전문분야 다수

신간

21C 불자 자가(自家) 기도법

[차례]
 제 1장-기본학습
 제 2장-중요경전
 제 3장-불공편
 제 4장-진언과 다라니
 제 5장-각종발원문
 제 6장-기도제법수기
 제 7장-불서출판수지공덕
 제 8장-내면탐사와 여래33천통기도
 제 9장-자가기도법
 제10장-불교기초지식
 제11장-권선문

◆택배발송 (발송비 무료) ◆정가 30,000원
 ◆문의 : 055-761-7462 / 011-552-3222
 ◆계좌번호 : 농 협 801032-51-032261
 우체국 610790-01-001194 (예금주: 여래암)
 홈페이지 www.yeraeam.com / cafe.daum.net/yeraeam

전자식 2중문 3중경보 특헌 불 전 합

움직이거나 텅만만 열어도 경내 전지역 경보상태

◆도난의 염려가 없는 사고 미연방지100%
 ◆돌발적인 경보로 침입자, 100% 도주 원목 법상

서원불교 ☎ 043-647-2378, 011-467-1472